

대학생 몰입영어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과 운영사례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Choe, Sook-Hee. (2001). A case study of course development for university immersion English progra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2), 187-210.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rse development for the Korean students in the immersion English program. This study describes the detailed curriculum and makes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ourses for regular, extracurricular, and special activities in the five-week immersion English program managed by KAIST in summer 2001. This immersion English program was designed to develop th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speaking English with native speaker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y providing students with the English-speaking immersion setting. The results of the students' tests and the data concerning the program revealed that the program was very significant in improv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focused on communication and presentation and in attaining the high motivation for the natural English communication by performing the student-centered and task-bas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pecial events.

1.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를 맞아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대학에서의 영어교육 목표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모습 또한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화를 향한 국가적 방침과 개방화 정책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의 실용영어 강화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과학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KAIST에서는 외국과의 빈번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교류, 발표 등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시도해 오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 실용영어 강화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용

영어 교육의 과도한 양적 팽창과 급격한 진행이 우려를 일으키는 바가 적지 않다. 대학생의 경우 적어도 6년 이상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접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를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층간의 열등감 조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몰입영어 프로그램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진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영어를 말하는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교실 환경은 언어 학습자들에게 그 언어에 노출되고 언어기법들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수용하는데에 제한된 기회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해 가능한 입력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과 모의 영어교육 환경 사이의 공백을 좁히기 위한 학습 전략과 외국어 교수법들이 필요하다. 모국어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언어를 사건이나 개념과 관련짓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다양하고 일정한 방식들을 사용하며,¹⁾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맞추어 언어 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은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모의 영어교육 환경에서도 유익하게 제공될 수 있다.

외국어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영어 교실 교육은 교실 밖에서의 의사소통 경험 부족과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출 부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목표어인 영어로 광범위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와 외국어 환경간의 공백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언어 발달의 기회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보다는 원어민과 교류하거나 목표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언어습득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에게 충분한 양의 믿을만한 입력을 제공하여 외국어 속으로 몰입시키는 몰입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목표어를 사용하는 언어문화를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무척 힘든 외국어교실의 제한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가 3년 동안 KAIST 어학센터 책임자로서 운영해 온 대학생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교과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운영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민덕기(1997, p. 142)에 의하면, 노래 활동들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고 그들이 제2 언어 말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감을 제공한다.

II. 의사소통 접근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

1. 의사소통 접근법

언어 교육은 언어 교수법과 학습 전략에 따라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대학생을 위한 몰입영어교육은 의사소통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이 원어인 교수들과의 자연스러운 외국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그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이론은 외국어 교수법의 목표를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 이론 하에서는 언어사용이 상황과 기능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언어 학습자는 언어사용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간주된다.

Canale과 Swain(1980)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의사소통 접근법을 조사하면서 외국어 사용자가 원어민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들로 문법적 언어능력, 사회언어학적 언어능력, 담화적 언어능력 그리고 전략적 언어능력이 있다고 제안한다.²⁾ 문법적 언어능력은 대략 Chomsky의 언어학적 언어능력과 동일한 것이며, 사회언어학적 언어능력은 언어사용이 문맥에 대한 적절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적 언어능력은 일치하는 문장 구조만이 아니라 문맥에 대한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전략적 언어능력은 외국어 화자가 다른 요소들의 불완전한 숙달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Tarone(1980)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은 화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모두가 공유되는 것이라고 본다.³⁾ 최근에는 의사소통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어교수의 초점이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에서 언어를 얼마나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지로 바뀌게 되었다.

Hymes(1972)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적 행동의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문법성(grammaticality)’ 대신에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제안한다.⁴⁾ 그는 언어사용은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사회적-문화적 변인이 의사소통 능력과는 뗄 수 없는

2) 언어학습 이론은 대개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 요소들보다는 문법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해 가능한 입력과 출력 가설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데에 제한된 가치를 부여한다. 류호열(1996, p. 125)은 외국어 교수 이론에서 문법적인 기법들도 외국어 학습에서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스러운 담화 패턴에서 문법을 강조하는 언어교육을 제안한다.

3) 여기에서 세 가지 주요한 전략으로 의역(paraphrase), 전이(transfer) 그리고 회피(avoidance)에 의존한다 (최숙희 1998, p. 174).

4) Chomsky(1965)는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performance)을 구분하며 인간은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언어를 습득하며 언어능력은 언어공동체에서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간에 지니고 있는 언어지식이라고 언급한다.

것이라고 지적한다. Nunan (1991, p. 279)에 의해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특징이 잘 설명되고 있다.⁵⁾

1) 의사소통 교수법

- (1) 목표어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학습을 강조한다.
- (2) 믿을만한 텍스트를 학습상황에 소개한다.
- (3) 학습자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학습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 (4) 각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들이 교실학습에 기여되도록 강화한다.
- (5) 교실 언어학습을 교실 밖의 언어활동과 연결시키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접근법은 형식적인 언어 이론보다는 언어사용의 기능적 양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언어사용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교육환경 속에서 수행되는 몰입영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간주되어 본 프로그램의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기본적인 방침으로 크게 활용되었다.

2. 총체적 언어 접근법

몰입영어 프로그램을 위해 의사소통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총체적 언어 접근법도 시도되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언어는 전체에서 부분을 배우는 것이며 학습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언어 진부를 배우게 된다고 간주한다.⁶⁾ 이 접근법의 기본 전제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언어를 습득하며 언어사용 상황이 의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접근법은 교수과정과 학습과정에서 언어체계의 모든 자질의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교수와 학습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효과는 의미 중심과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언어가 텍스트의 내용보다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이며 행동화할

5) 의사소통 접근법이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장 규칙들에 대한 형식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나 담화의 자질, 적절한 사회언어학적 규칙, 의사소통 전략 등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형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식을 강조하는 연습과 의미를 강조하는 경험들을 종합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개발된다고 본다.

6) 언어학습에서 언어는 사실적, 자연적, 총체적이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학습자 중심의 언어일 때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반면에 언어가 인위적인 표현이고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면 학습자와 관련이 없고 수용할 수 없을 때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Brown(1994, p. 82)에 의하면 총체적 언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2)

- (1) 학생중심의 참여하고 협동적인 학습
- (2) 학습자들의 사회와 언어의 사회적 특성의 강조
- (3) 믿음만한 자연스러운 언어와 의미 중심적인 언어의 사용
- (4) 네 가지 기능의 통합과 전체론적 관점에 입각한 평가 기법

요약해 보면, 의사소통 접근법은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경험을 교실로 끌어들이고 교실에서의 학습과 교실 밖에서의 언어 활동을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구문을 지도하는 경우 의사소통 접근법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차이가 없으나 이 접근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구문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구문을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내에서 의미 파악을 통하여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법이 모의 영어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몰입영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고 간주되어 몰입영어 프로그램의 교수방식에 적극 시도되었다.

III.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 사례

몰입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프로그램(English Village Program: EVP)⁷⁾은 KAIST에서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KAIST 학생들과 일부 일반 대학교 학부생들에게 영어권 나라에서 행해지는 해외 어학연수와 유사한 모의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어로서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6년간 운영되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어학연수와 달리 정규강좌 이외에도 그룹리더 또는 원어민 담당교수와 함께 영어로 수업하는 중일제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TESL이나 영어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외국 대학생들에게 교육 경험이 있는 원어민 교수들을 초빙하여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과 과외활동의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⁸⁾ 2001년에 수행된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이전의 프로

7) 타 대학교에서 시행된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를 조동완(1998), 유범(1999), 박연미와 최연미(20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연구들에서는 연령별이나 전공별에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운영사례를 제시한다.

8) 본 학교에서는 매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TESOL 학회에 참가하여 본 프로그램을 위해 외국인을 직접 인터뷰하여 모집하고 있다.

그램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운영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⁹⁾ 본 연구에서는 2001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몰입영어교육의 목표에 따른 새로운 교과목 개발로 수행된 정규강좌들의 특성과 정규강좌, 과외활동 및 특별활동간의 연관관계 및 프로그램 결과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참가자, 교수진과 그룹리더, 및 기숙영어 연수

1) 참가자

이 프로그램은 KAIST 재학생들인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과 일반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영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5주 동안 캠퍼스에서 일상생활을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의미있고 자연스러운 활동들을 통해 영어에 대한 숙달은 물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급은 16명씩 4반으로 운영되었다. 영어로 생활을 하며 학습활동을 하기에 학급당 더 적은 수의 학생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학급당 16명은 5주 기간 동안 지루하지 않고 학습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여겨졌으며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급을 4반으로 운영했던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도록 영어능력의 4가지 영역을 위해 원어민 교수 4명을 초빙하여 강좌당 담당교수를 정하는 분리식 수업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참가자의 구성¹⁰⁾은 참가자 62명중 KAIST가 40명으로 64.5%, 일반대학교가 35.5%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59.6%, 여학생이 40.4%를 차지하였다. KAIST는 물론 일반대학교 학생들도 거의 이공계 학생들이어서 그들의 취미와 성향 및 학습방법의 유사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특이한 현상은 다른 해보다 1학년 학부 학생들이 40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64.5%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 현상은 석사과정 1명과 박사과정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학부생으로 96.7%에 달했다는 것이며, 2학년 학부생은 14.5%, 3학년 학부생은 9.6%, 4학년 학부생은 8%에 해당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저학년일수록 영어 학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9) 박영예(1999)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소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 개발에 따른 내용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10) 본 프로그램의 정원은 64명이었으나 학생 두 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포기하여 62명으로 운영되었다.

표 1
참가자들의 소속학교, 학년 및 성별 분포

구분	학년	인원	성별	
			남	여
KAIST	1	33	23	10
	2	3	-	3
	3	-	-	-
	4	3	2	1
	박사과정	1	-	1
	소계	40	26	14
일반대학교	1	7	7	-
	2	6	2	4
	3	6	1	5
	4	2	1	1
	석사과정	1	-	1
	소계	22	11	11

2) 교수진과 그룹리더

효과적인 몰입영어교육을 위한 모의 영어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원어민 교수일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원어민 교수 4명을 미국과 한국에서 초빙하였으며 원어민 교수들의 전문적인 교육 능력, TESL 전공, 연령, 외국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경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해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TESL 전공의 자격을 갖춘 원어민 교수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활발한 학습 활동을 위해 젊은 층의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수 인터뷰 결과와 각자의 경험과 희망을 고려하여 정규 교과목 4 분야 중에서 담당 교과목을 결정하였다. 원어민 교수들은 교실 영어환경에서 의사소통 접근법을 중심으로 교수하고, 그들 각자는 각 학급의 담임 교수가 되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학생들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책임을 맡게 되었다. 또한 교수들 중 한 명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그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강, 강의 준비, 학생들의 학습반응 및 관리, 행사 준비 등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몰입영어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 그룹리더들이다. 그룹리더들은 각 학급에 두 명씩 배치되어 정규 교과과정 이후의 과외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원어민 교수들에게 학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좀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활동들을 통해 활용하고 연습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부터 유학한 대학생들로 원어민과 똑같은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도움으로 학문적인 행사들은 물론 오락을 가미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교실 현장에서의 과외활동 외에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대학생들과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원어민 교수와 그룹리더들은 프로그램 개시 일주일 전부터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미리 캠퍼스에 입주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정규강좌와 과외활동의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전체의 일정을 계획하며 학급 배정을 위한 기준과 프로그램 수칙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3) 기숙영어 연수

몰입영어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모의 영어환경을 위해서는 참가자 전원의 기숙 영어 연수가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5주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2명씩 같은 방에 배정되었다. 원어민 교수, 그룹리더, 그리고 참가학생 전원이 함께 기거하면서 하루종일 강좌와 그 외의 학습활동을 하였다.

기숙 영어연수는 영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몰입영어교육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KAIST와 같이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연수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실용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극복하고 정서적 측면에서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Krashen(1982)의 주장처럼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을 때 언어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의 기숙 영어 연수는 의사소통 활용 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자들만을 위한 독립된 시설이 부족하여 24시간 완전한 영어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음이 안타깝게 여겨졌다.

2. 학급배정과 프로그램 규칙

1) 학급배정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가자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준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급을 수준별로 배정하여 개인차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맞는 탄력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급 배정 시험은 두 가지 종류로 치러졌다. 하나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또 하나는 제한된 시간에 치러야 하는 인터뷰와는 달리 보다 객관적이며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묻는 듣기 시험으로 평가하였다.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와 듣기 평가 결과에 따라 학급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을 다르게 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학급을 초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 놓지 않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먼저 고려하여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요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인터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KAIST 재학생들과 일반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터뷰를 다른 두 날짜에 진행하였다. KAIST 학생들에게는 봄학기 중에 날짜를 지정하여 인터뷰를 하고 일반대학교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입학식 날에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질문과 학급 배정에 대해 원칙을 수립해 놓았고,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따라 융통성있게 인터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어민 교수 4명이 모두 참여하여 학생당 인터뷰 시간을 20분으로 시행했으며 학생이 부담 없이 원어민 앞에서 말하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피하게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수와 약속된 시간에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인터뷰 평가 기준은 다음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고급반, 중상급반, 중하급반, 초급반으로 운영되었다.

표 2
인터뷰 평가 기준

수준	점수	내 용
고급	60	의사소통이 거의 항상 효과적이며, 과제가 매우 충분히 수행될 때
중상급	50	의사소통이 대개 효과적이며, 과제가 충분히 수행될 때
중하급	40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며, 과제가 어느 정도 수행될 때
초급	30	의사소통이 대개 효과적이지 못하며, 과제가 대개 서투르게 수행될 때

(2) 듣기 시험

듣기 시험은 참가자 전원이 입학식 날 오후에 치르게 하였으며, 방법은 TOEFL의 듣기 부문 50문항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학급 배정을 위해 1차 듣기 시험을 치르고 듣기 능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사한 난이도의 TOEFL 듣기 시험을 프로그램 종강 일주일 전에 2차로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규칙

(1) 영어만 사용하기 규칙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 카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강의시간은 물론 24시간 동안 영어만을 사용하게 하는 강제 규정으로 영어 사용을 습관화하여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면 경고 카드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었다. 너무 엄격한 규칙이었고 규칙 적용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의 평가부문에서 이 규칙에 대해 과반수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수료증 수여 기준

모든 강좌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90% 이상의 출석률을 유지해야 했으며 3번의 지각은 결석 1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3번 이상의 경고 카드를 받지 말아야 했으며 각 교과목과 과외활동에서 필수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그 결과 출석률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지각의 경우가 많아 62명 중 11명인 17.4%가 미수료증을 받게되어 안타까웠다.

(3) 점심식사

모든 학생은 프로그램 5주 동안 담임 교수와 3번씩 점심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명에 의한 점심 약속을 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날짜에 2명의 학생과 원어민 교수가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 시간은 교수와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문제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3. 교과과정

본 프로그램은 교과목 개발을 통해 정규강좌 외에도 자연스러운 영어소통을 위해 과외활동 및 특별행사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정규강좌는 원어민 교수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학습일정에 따라 지도하였으며, 과외활동은 그룹리더들에 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강좌에서 배운 영어의 표현과 방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행사는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과 원어민 교수, 그룹리더, 운영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서 영어에 친근해지도록 흥미를 가미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표

시간	구분	내용
09:30 ~ 10:40	오전 정규강좌	말하기, 쓰기, 발표 및 듣기 향상을 위한 수업
10:50 ~ 12:00	오전 정규강좌	
12:00 ~ 13:20		점심
13:20 ~ 14:30	오후 정규강좌	말하기, 쓰기, 발표 및 듣기 향상을 위한 수업
14:40 ~ 15:50	오후 정규강좌	
16:00 ~ 17:30	과외 활동	일/주별 다양한 활동
특별행사 (Special Events)	Welcoming Party	EVP Court
	EVP Commercials	Presentation Contest
	Game Show	Angels & Mortals
	Talent Show	Farewell Night

1) 정규강좌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능력을 지니며 무의식적으로 모국어를 습득하지만 성장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외국어의 구조나 문법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외국어 학습을 위해 모국어 환경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영어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본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도록 원어민 교수들과 함께 말하기, 듣기, 쓰기 및 발표 능력의 향상을 교육 목표로 삼아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¹¹⁾ 강의 내용과 학습활동을 위해 최대한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며 언어학습에 필요한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되도록 주요 교수법¹²⁾ 중에서 의사소통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또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였고 관련있는 담화를 이끌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학습자 중심과 과제 중심 접근법을 병행하였다. 영어 원어민 교수들이 각 학급에 담임 교수제 형식으로 임명되고 교과

11) 언어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네 가지 능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12) 네 가지 주요 교수법으로는 청화식 접근법, 인지적 접근법, 의사소통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일컬어지고 있다.

목은 특정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다루는 분리식 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특정 교수가 기능별로 전체 학생을 교육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과목 내용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었다. 담임제의 도입으로 각 학습자에 대한 영어능력 향상 정도는 물론 프로그램 활동의 참여도, 출석률, 반응, 급우관계, 희망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보완, 수정 사항들을 매주 개최되는 프로그램 운영 교수회의에서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1) 의사소통 중심 강좌 (Focus on Communication)¹³⁾

본 강좌는 학생들이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미 적어도 6년 이상 영어를 공부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원한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별, 2인조별, 그룹별 또는 학급전체 학생들과 말하도록 유도되었다. 강좌 내용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표현, 발음, 문법, 어휘, 숙어 등을 의사소통을 조장하기 위한 연습, 학생 활동, 게임 등을 통하여 교육되었다.

강좌의 목표에 맞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총체적으로 강좌 내용을 관련있는 담화로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강의 방법으로는 우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실수없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의 동기를 개발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영어학습 동기를 열거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강좌에서의 학습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이란 다른 사람과의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여 학습하도록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시켰다. 비슷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학생들끼리 학급을 편성했기 때문에 학습자간의 이해와 협동과제에 큰 무리가 없었다.

의사소통 중심 강좌에서는 문법이나 발음 등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화자가 말하려는 것, 의미, 학습자가 느끼는 방식, 청자가 원하는 것 등의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학생들이 주어진 각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시켰다. 2인별 또는 그룹별로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은 물론 흥미를 가미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재를 사용함으로써¹⁴⁾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식과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13) 정규 강좌의 경우 2001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어민 교수들이 사용한 강의계획서와 수업 참관 및 설문 조사에 따른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14) 본 강좌를 위한 교재로는 초급반, 중급반에서는 각각 Wilson W.와 R. Barnard. (1998) *Fifty-fifty, Book 1*과 *Fifty-fifty, Book 2*를 사용하였으며 고급반에서는 Pattison T.와 T. Milburn. (1996)의 *In focus 3*을 사용하였다.

학급 수준과 학생들의 적응력에 따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보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하며 학습내용과 관련있는 담화를 유도하도록 시도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강좌에서 지적되는 것은 강의시간에 학급 전원을 열성적으로 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실제 영어환경처럼 영어로 생활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지만 한국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영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구나 대화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발표 중심 강좌(Focus on Presentation)

이 강좌는 학습자들이 구어체로 발표를 계획하고 구성하고 연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발표 기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발표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강좌의 내용은 5주에 걸쳐서 효과적인 구어체 의사소통인 발표솜씨, 발표내용, 적절한 언어, 적극적인 듣기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배우고 실제로 세 가지 유형의 발표가 포함되었다. 공식적인 발표 외에도 개인별, 소그룹, 대그룹 상황에서 행해지는 교실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회의, 세미나, 논문발표 등을 위해 자료 준비방법, 의견을 발표하는 방법, 질의응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이 강좌에서는 교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조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표 상황과 발표 주제를 선정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각 학급의 수준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글을 읽고, 연구과제와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내용의 개요를 작성하며, 발표 준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런 정보를 발표자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훈련시켰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에게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수업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의사소통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연습하게 함으로써, 본 몰입영어 프로그램의 목표에 달하는 강좌를 이끌 수 있었다. 그들이 장차 자주 접해야 하는 영어 발표능력을 정확히 배우고 자신의 문제점과 좋지 못한 습관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문적 국제 교류와 대학원 중심의 논문 발표 기회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발표 중심 강좌에 대한 강한 동기와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발표 중심 강좌의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 주제와 학생들의 중점 고려사항과 숙제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 번째 주제는 발표에서의 기본사항으로 청중들

15) 본 프로그램의 발표 중심 강좌를 담당 한 원어민 교수의 강의계획서를 근거로 조사하였으며 이 강좌에서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Porter, P & M. Grant, (1992).

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보 및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먼저, 청중인 급우들에 대한 연령과 성별을 비롯하여 소속 및 소속대학교, 전공, 출생지역, 출신 학교, 취미, 특기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후 조사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학급에서 차례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보고서를 듣고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과 개인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활동 속에서 급우들을 이해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 시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먼저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구성하고, 결론을 작성하고, 서론을 작성하면서 시청각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교육적이거나 시연을 통한 발표문을 연설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주제는 발표 중심 강좌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먼저 적절한 문제들을 선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문의 줄거리를 구성하고 그 후 결론과 서론을 작성한 다음 발표문을 발표하고 평가받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문제를 찾고 해결안을 관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발표 중심 강좌의 핵심은 최대한 학습자 중심이고 과제 중심인 교육방식을 유도하면서, 모의 영어환경에서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본 강좌를 확대 시행하여 각 학급에서 정규 교과목 활동으로 행해졌던 발표팀들 중에 우수팀을 선발하여 프로그램 전체 특별행사인 영어 발표력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학생 중심의 학급 활동을 프로그램 전체 행사와 연계시킴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와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에게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강좌의 중점사항은 학생들의 발표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여 자신있게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3) 쓰기 중심 강좌(Focus on Writing)

이 강좌는 학생들의 영어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로 일반 작문과정, 수필,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법 등을 학습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교재를 선정하여¹⁶⁾ 체계적인 쓰기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급 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매주 쓰기 과제가 주어졌다. 과제를 통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쓰기 숙제로 제출된 글 중에서 좋은 글을 선정하여 본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인 주간신

*Communicating Effectively in English*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16) 본 강좌의 교재로는 초급반에서는 Blanchard K. & C. Root. (1994). *Ready to Write: A First Composition Text*를 사용하였고, 중급반과 고급반에서는 Blanchard K. & C. Root. (1994). *Ready to Write More*를 사용하였다.

문 만들기에 발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학습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학생 중심적인 활동은 모의 영어환경이라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이면서도 즐거운 학습을 이끌도록 도와주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위한 몰입영어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거의 상당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및 표현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되었다. 매번 수업이 시작될 때 약 7분 동안 재미있는 기사 쓰기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긴장을 풀고 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 후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하고 관련된 사회 문제나 다른 기사들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룹별로 읽고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숙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쓰기 집중 강좌이므로 학생들에게 네 가지 요점을 생각하며 글을 쓰도록 하였다. 우선 글의 구성과 전개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과제에 적합한 글을 구성하고 문단과 글 전체가 잘 전개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그리고 어휘와 문어체 표현에 비중을 두었다. 흔히 학습자들이 사전에서 찾아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없애기 위하여 적절하면서도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더욱 기술적인 표현을 시도하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글이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글의 이해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읽고 이해 가능하도록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글을 구상하여 쓰고 난 후 목표어인 영어로 번역해 놓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쓰는 습관을 익히도록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글의 창의성을 중요시했다. 다른 글을 읽고 유사한 내용으로 쓰거나 아주 짝박하게 내용없이 쓰는 경우를 엄하게 규제하고 가능한대로 과제에 맞게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습 과정이 교수 중심의 강좌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2인조별, 그룹별로 과제 중심의 강좌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본 강좌는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과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쓰기 중심 강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혹 숙제가 너무 많거나 학생들이 다른 과외활동이나 특별행사 준비로 바빠서 숙제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 자료의 내용이 전체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습 진도에 신경을 쓰다보면 글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을 배울 시간이 적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작년 프로그램에서 교재 없이 운영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쓰기 숙제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교정 작업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몰입영어 프로그램에서는 꼭 찬 일정으로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쓰기 중심 강좌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 대한 수정이나 피드백을 원하여 그 부분이 소홀히 된다면 강좌의 의미가 감소되므로 담당교수의 부담이 다른 강좌에 비해 조금 더 요구되었다.

(4) 듣기 중심 강좌(Focus on Listening)

본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구어체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속도로 말하는 영어권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의 듣기 능력의 차이에 따라 교재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다른 책을 사용하였으며¹⁷⁾ 강의 목표도 다르게 설정하였다. 초급반의 경우 학생들이 대화에서의 주요 개념, 사람이나 상황 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나 불허, 일치나 불일치, 사과나 불평 등의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시켰다.

중급반의 경우 상위 중급과 하위 중급으로 나누어 학급을 편성했지만 같은 교재를 선정하였다. 강좌 내용은 학술적인 것과 비학술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학습자들은 화자들의 대화 목적을 확인하면서 정보취취 전략과 대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상세한 정보, 과정 단계들, 정보 유형간의 차이를 식별하면서 적절하게 답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

고급반의 경우도 교재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나 대화에서 주요 내용을 메모하게 하면서 이해력 향상을 위한 듣기 전략을 분석하는 기술을 증대시키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은 다양한 학술적인 주제들을 포함하였고 이런 주제들은 강좌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학급별 수준에 따른 교재 외에도 모든 학급에서 학생들의 필요와 참여도에 따라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CD-ROM 등의 다른 보조 자료들도 제공되었다.

강좌 내용은 담당 교수의 강의, 학급의 토론, 교재 듣기와 말하기 훈련, 그리고 2인조별, 그룹별 활동과 교실 밖에서의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또한 정상 속도의 영어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CNN과 같은 미국 방송 등의 활용은 물론 원어민 대화체를 듣기 위해서 영화 감상도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필요에 따라 자료실에 있는 많은 캡션 영화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네 가지 영역별 교과목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5주라는 짧은 기간의 모의영어환경에서 충분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동기 유발과 흥미로운 학습 방법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17) 본 강좌의 초급반과 중급반에서는 각각 Helgesen M. & S. Brown. (1994). *Active listening building: Skills for understanding*과 *Active listening expanding: Understand through content*를 사용하고, 고급반에서는 Kisslinger E. (1994). *Selected topics: High-intermediate listening comprehension*을 사용하였다.

2) 정규강좌와 과외활동 및 특별행사의 연관성

과외활동은 학생들에게 정규강좌에서 학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즐거운 활동을 통해 좀더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그룹리더들이 각 학급당 두 명씩 배치되어 정규강좌 이후에 1시간 반에 걸쳐 학생 중심의 활동과 과제 중심의 학습을 유도하면서 학문적인 행사들은 물론 다양한 행사들을 이끌었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과 모의 영어교육 환경 사이의 공백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 학습전략과 외국어 교수법들이 연구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미국에서 흔히 하는 게임, 경기, 놀이 등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거나 특별행사의 준비를 위해 게임 쇼, 텔런트 쇼 등을 연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게임이나 놀이활동을 통해서 미국 생활과 문화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또한 특별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프로그램 참가자, 원어민 교수진, 그룹리더, 운영진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 행사로서 외부 공개행사로 진행되었다. 특별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규 과정과 과외활동에 임했으며 얼마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외활동 중에서 몇 가지 활동들을 특별행사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그 동안 학습한 영어능력을 여러 관객 앞에서 말하고, 발표하고, 듣고,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소통 접근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행된 대표적인 과외활동과 특별행사를 소개하면서 정규 강좌와의 연관성 및 특별행사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장점을 조사해 보겠다.

먼저, 과외활동 중의 하나인 영어마을 프로젝트(EVP Project)를 생각해 보자. 각 학급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하나씩 배정받아 사명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 4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각 학급에 신문 출판하기, 졸업기념 앨범 만들기, 인터넷 방송 제작하기, 비디오 제작하기를 배정하였다. 신문 출판하기는 주간신문으로 ReadMe Weekly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으며, 그 주간의 주요행사, 강좌 소개, 교수, 그룹리더, 학생들과의 인터뷰, 쓰기 강좌에서 선정된 여러 유형의 글 및 특별행사 소개 등으로 꾸며졌다. 졸업기념 앨범 만들기에서는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사진을 포함하여 담당교수들의 인터뷰 기사에서부터 각 학급의 특색이나 급우들 소개, 각 학급의 행사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특별행사를 포함한 사진들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과 함께 실리고 학생들이 자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함께 참가자의 주소록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자료와 추억을 제공하였다.

또한 인터넷 방송 제작하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활동, 행사, 다채로운 글들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제작하기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사를 입학식부터 수료식까지 녹화한 CD-ROM을 제작하였다. 모든 프로젝트 완성물은 프로그램 종료 후 기념품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책자와 CD-ROM으로 제작되어 배포됨으로써 귀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외활동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많은 준비와 노력은 물론 인터넷 방송이나 비디오 제작에서는 필요한 자료나 시설 장비들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교실내의 정규강좌에서 익힌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교실 밖이나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의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동기는 물론 학습효과를 확인 시켜 줄 수 있었다.

또한 특별행사로 시행된 영어 발표력 대회(Presentation Contest)를 생각해 보자. 정규 강좌인 발표 중심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4주 째에 그 동안 준비한 발표내용을 대회를 통하여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본 프로그램의 학급이 4 학급이므로 각 학급당 2팀의 출전이 적당하였다. 발표 시간은 준비시간까지 총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허용하였으며, 각 팀의 실제 발표 시간은 10-15분 정도로 하고 1인 발표 또는 팀 발표 등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심사 기준으로는 시간, 발표 태도, 발표 내용의 충실도, 내용 전달의 정확성, 시각적 자료들의 준비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심사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발표 내용을 원고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시간 제한을 주고 시간 초과나 부족 시에는 일정한 감점을 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는 심사 위원들이나 관객들로부터 발표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도 채점 대상이 되었다.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은 발표 중심 강좌의 담당 교수가 맡도록 하고 배점, 규정, 심사 내용 등을 정하도록 맡기면 효율적이었다.

학생들에게 정규강좌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로 청중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강좌와 실제 영어환경에서의 활동을 연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영어 환경에의 제한된 노출로 자신감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외활동과 특별행사가 정규강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본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 기간을 통하여 원어민 교수들과 그룹리더 그리고 참가자 거의 전원이 만족스럽게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생활을 했으며 학생들은 영어능력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과외활동과 특별행사 전체에 대한 스케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001 EVP 과외활동과 특별행사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제1주	Ice-Breaking	Activity Introduction	Representative Election	T-shirts Design	Songs & Movies
제2주	Language games	EVP Forum	EVP Court	EVP Commercials	Songs & Movies
제3주	Language games	Holiday	EVP Court	Songs & Movies	Talent Show
제4주	Game Show	EVP Forum	EVP Court	EVP Commercials	EVP Presentation
제5주	EVP Forum	EVP Court	EVP Project	Post-Test Survey	Farewell Night

4.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점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학습효과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의 장단점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설문조사를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자료를 구했다. 설문은 정규강좌에 대해 강좌내용, 교사, 숙제부문으로 나누어 18문항을 조사하였고, 과외활동과 특별행사에 대하여 내용에 관한 12문항과 그룹리더에 대한 9문항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18문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와 프로그램 사전/사후의 듣기 시험을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학급 배정을 위해 한 번 치르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60점 만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학급별 인터뷰 결과

	고급반	중상급반	중하급반	초급반
점수(60점)	55.5	48.3	42.1	32.1
성취도	92.5%	80.5%	70.2%	53.5%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고급반은 100점에 대해 92.5%의 성취도를 나타냈고 그 다

음으로 중상급반, 중하급반 순서이며, 반면 초급반은 가장 적은 53.5%의 성취도밖에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며,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학급 배정이 얼마나 중요성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참가자들의 75.2%가 학급 배정의 적절성에 대해 만족하였다.

또한 학습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표 6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전/후의 듣기 시험을 분석해 보자.

표 6
듣기 시험 결과

	프로그램전	프로그램후	동점, 향상된 학생
문항(50)	29.3	29.9	
성취도	58.6%	59.8%	56.5%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시행한 듣기 시험에서는 50문항 중 29.3문항을 맞추어 58.6%의 성취 결과를 보이고 프로그램 교육 후에 시행한 듣기 시험에서는 50문항 중 29.9문항을 이해하여 59.8%의 결과를 보였다. 표 6에서 보이듯이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미약하지만 향상한 것을 알 수 있다. 2차 듣기 시험에서 1차 시험보다 성적이 향상되었거나 동점인 학생이 56.5%를 나타내어 과반수 이상이 듣기 능력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영어가 이전보다 숙달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69.6%나 되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가장 향상된 영어 능력으로 말하기를 67.2%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향상된 영어 능력으로는 듣기를 21.9% 선택했다. 결국 본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영어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의사소통 중심 강좌, 듣기 강좌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프로그램 참가후 가장 향상된 영어 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67.2%	1.8%	9.1%	21.9%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은 표 8과 표 9에서 나타나듯이 강좌별 가장 재미있었던 강좌와 내용의 만족도에서 발표 강좌와 과외활동 및 특별행사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좌와 활동의 내용들이 충분히 잘 개발되어 있으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은 물론

의사소통능력 기법에서도 의미있는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좌 담당교수와 그룹리더의 자격과 교수법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원어민 담당교수의 강의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가 발표강좌의 97.8%에 달하고 그룹리더들의 활동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인 태도가 90.6%에 달하여 몰입영어교육에서 교수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었던 강좌

의사소통	쓰기	발표	듣기	과외,특별행사
2.1%	4.3%	42.6%	4.3%	46.7%

표 9
강좌내용의 만족도

의사소통	쓰기	발표	듣기	과외,특별행사
73.8%	75.2%	88.6%	73%	89%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에 있어서, 정규강좌, 과외활동, 특별행사 내용의 적절성에서 78.8%가 만족했고, 하루에 정규 4강좌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75.6%가 만족했으며, 또한 프로그램 기간 5주와 학급인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프로그램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표 10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47%	25.7%	25.7%	1.7%

표 11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EVP 내용	정규 4강좌	5주기간	학급인원
78.8%	75.6%	66%	78.2%

모의 영어교육환경의 약점을 극복하고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영어만 사용하기 규칙은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교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강의시간 이후나 5주간 동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현장의 약점을 여실히 나타내 보이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경고 카드 제도를 원어민 교수들과 학급 대표들뿐만이 아니라 그룹리더들을 포함하여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강화된 제도를 만든다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경고 카드의 효과가 있었다는 반응이 44.8%이었으며 영어만 사용하기 규칙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71.4%에 달했다.

표 12
영어만 사용하기 규칙의 성공여부

강의시간	강의시간후	5주동안
71.4%	43%	43%

IV. 맺는말

세계화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환경에서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어 교수법을 조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 개발을 연구하였다. 몰입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영어사용에 몰입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어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5주 동안 수행된 프로그램에서 정규강좌, 과외활동, 그리고 특별행사들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시사하였다. 학생들의 시험 결과와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들은 몰입영어 프로그램은 의사소통과 발표에 초점이 가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학생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과외활동과 특별행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에 대한 높은 동기 유발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특히 발표중심 강좌와 과외활동에서 일치하는 강한 흥미와 만족도를 보였다. 이것은 강좌 담당 원어민 교수와 그룹리더의 자격과 교수법이 학습효과와 향상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몰입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언어 교수법에 알맞은 교과목의 개발과 더불어 자격을 갖춘 원어민 교수와 그룹리더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박연미, 최경미. (2001). 몰입영어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언어연구*, 17(1), 101-122.
- 박영예. (1999). 영어마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1), 197-219.
- 신용진. (1997). The whole language approach와 세 가지 주요 교수법의 구문지도 비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2), 21-46.
- 유범. (1999).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위한 방학이용 집중 영어연수과정 개발 사례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6(1), 325-350.
- 이흥수, 박효명. (1996). 실용목적과 실행능력에 입각한 대학영어교육의 새로운 구상.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2), 33-52.
- 조동완. (1998). 몰입 영어 교육 사례: 포항공대 몰입 영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5(2), 157-178.
- 최숙희. (역). (1996). *문법이론과 언어습득*.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최숙희. (역). (1998). *언어학과 외국어 습득*.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최숙희, 김양순. (역) (2001) *제2 언어 통사론 습득*. 서울: 도서출판 동인.
- Garrett, N. (1986). The problem with grammar: What kind can the language learner use? *Modern Language Journal*, 70(2), 133-48.
- Hymes, D. (1972). Competence and performance in linguistic theory. In R. Huxley & E. Ingram (Eds.), *Language acquisition: Models and methods*. NY: Academic Press.
- Krashen, S.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Hayward, CA: Alemany.
- Min, Deok-Gi. (1997).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EFL developmen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2), 141-154.
- Nunan, D. (1991). Communicative tasks and the language curriculum. *TESOL Quarterly* 25(2), 279-295.
- Ryu, Hoyeol. (1996).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1), 125-140.
- Tarone, E. (1980) Communication strategies, foreigner talk, and repair in interlanguage. *Language Learning*, 30(2) 417-31.
- Terrell, T. (1991). The role of grammar instruction in a communicative approach. *Modern Language Journal*. 75, 52-63.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305-701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Tel: (042) 869-4614
Email: shchoe@cais.kaist.ac.kr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uary, 2002